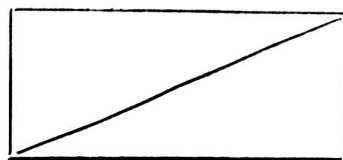


74-14



韓國統一政策의 合理性檢討

보관용
(관리과) 5/3

1974. 6.

국토통일원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4년도 상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4년 6월 일

연구기관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책임자 신 도 성

目 次

1. 심포지움 進行概要	3
2. 問題提起	9
3. 主題発表	15
4. 討議内容	31
5. 結論과 建議案	65

1. 심포지움 進行 概要

統一問題 심포지움

主 題

韓國統一政策의 合理性 檢討

때 : 1974年 6月 15日(土)
上午 10時~下午 5時

곳 : 嶺南大學校 慶山캠퍼스
文理科大學 小講堂

嶺南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심포지움日程

- 9 : 50 ~ 10 : 00 登 録
- 10 : 00 ~ 10 : 05 国民儀礼
- 10 : 05 ~ 10 : 10 開会人事 嶺南大学校 総長
- 10 : 10 ~ 11 : 00 問題提起
- 11 : 00 ~ 12 : 00 "우리가 解決해야 할 統一問題"
- 12 : 00 ~ 13 : 00 점 심 (学生会館)
- 13 : 00 ~ 14 : 40 陪審討論 司会 李昶雨 (嶺南大)

< 討 論 參 加 者 >

權 赫 基 (嶺南大)	金 永 洙 (曉星女大)
朴 泰 岩 (教育大)	俞 好 根 (嶺南大)
李 相 寬 (每日新聞)	李 宇 榮 (慶北大)
李 鍾 明 (嶺南日報)	鄭 喆 洙 (慶北大)
崔 在 元 (韓社大)	崔 俊 成 (啓明大)

14 : 40 ~ 15 : 00 休 憩

< 參 加 学 生 >

경북대학교

김 공 식 (정 의 과 4 년)	유 명 수 (사회학과 3년)
노 병 열 (")	조 현 영 (" 4년)
하 상 시 (" 3년)	여 은 영 (사학과 2년)
김 석 광 (")	홍 구 조 (철학과 4년)
이 성 응 (")	주 선 미 (문리과 4년)

계명대학

김 창 현 (영문과 4년)	박 남 규 (철학과 4년)
서 정 열 (")	하 차 대 (사학과 4년)
임 창 기 (철학과 4년)	

효성여자대학

김 길 자 (영문과 3년)	김 성 희 (약학과 2년)
박 금 순 (가정과 3년)	황 영 희 (경영과 2년)
김 종 숙 (사회교육과 2년)	

한국사회사업대학

김 광 범 (특수교육과 3 년)
조 덕 희 (사회사업학과 4 년)
김 수 환 (" 3 년)
송 방 호 (" 3 년)
박 천 익 (경제 과 4 년)

대구교육대학

이 돈 열 (2 년) 김 대 열 (2 년)
홍 화 성 (") 박 정 희 (")
조 동 직 (")

영남대학교

권 상 석 (정치과 4 년) 김 세 영 (법 과 3 년)
김 성 구 (") 기 대 기 (행정과 4 년)
김 철 하 (") 김 광 택 (")
오 경 수 (") 김 병 재 (")
서 보 근 (" 3 년) 남 진 호 (경제과 3 년)
이 광 호 (") 한 창 희 (영문과 3 년)
이 상 택 (") 이 후 영 (체육과 3 년)
채 회 중 (")

16 : 50 ~ 17 : 00

閉会人事

統一問題研究所長

2. 問題提起

問 題 提 起

— 独逸의 경우와 比較하여 —

< 1 >

独逸에 있어서는 오랜 時日에 걸친 東西独간의 人的·物的 接觸·
交流의 漸進的인 擴大 끝에 두 独逸國家의 平和的 共存의 基本原
則에 合意함으로써 兩獨關係의 長期的 安定段階에 到達하였다.

< 参 照 >

東西独간의 經濟交流

交易의 展開過程, 實態 및 交易政策(西伯林 所在 “信託管理所”)

東西独간의 社会·文化交流

人的往来, 離散家族 및 親戚訪問, 文化·芸術交流(1964年4月
東獨 文化省長官의 西獨各州 文教長官들에게 보낸 公翰과
西獨측 回答), 스포츠交流, 接境交通 및 通信

韓國에서는 四分世紀에 걸친 南北간의 絶對的인 断切과 極限的
对決 끝에 갑자기 兩政權 当局 사이의 秘密協商을 통해서 接觸과
對話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對話는 南北關係의 安定과 和解로
連結되지 못하고, 도리어 敵對感情을 刺戟하여 对決狀態를 還元시키
는 結果를 招來하였다.

이러한 經緯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對話方式은 적어도 그 順
序와 形態에 있어 잘못된 것이 아니었던가 反省해 볼 만하다.

<2>

國際적으로 유럽에 있어서는東西兩陣營의勢力圈區劃이明確하고, “나토”와 “바르샤와”條約機構 사이의勢力均衡이 이루어져 있으므로兩獨간에 있어서도軍事上 또는體制上 問題가 될만한不安要因이 存在하지 않는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西獨은 朝鮮을 비롯한 東歐 共產圈에 대한 能動的 緊張緩和政策을 적극 推進할 수 있었고, 그러한 東方政策 (Ostpolitik)이 충분히 成熟한 다음 비로소 東獨과의 關係定立이 可能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事情은 이와 다르다. 거기서는 韓半島의 周邊 強大國인 美·日·소·中共 간에 複雜多岐한 利害關係가 얽혀 있을 뿐 아니라 最近의 事態發展은 必로 이들 사이의 均衡關係가 改編·再調整 되려는 段階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美國의 後退傾向, 日本과 中共의 擡頭, 中·소紛爭 등).

이와같은 環境속에 있는 韓半島의 情勢도 매우 流動的일 수 밖에 없으며, 여기서 南北간에 安定된 共存關係가 確立되기는 아직도 遼遠한 感이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分斷된 現狀의 變更을 의미하는 “統一”을 性急히 追求한다면 이는 하나의 危險한 冒險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見地에서 7·4 南北共同聲明은 지나치게 “統一”에 置重한 것 같으며, 특히 그것이 北傀측에 의한 赤化統一攻勢에 最大限으로 利用되고 있다는 現實에 비추어, 여기에도 적지 않은 問題點이 있지 않는가 檢討해 볼 必要가 있을 듯하다.

<参 照>

1970年 8月11日 独·蘇条約 締結

同年 11月18日 独·波条約 締結

1971年 12月17日 兩独간 通行協定 締結

1972年 11月 8日 東西独基本条約 締結

同 条約 前文

“ 兩 独逸은民族의 将来 問題를 포함한 여러 가지 基本問題들에 관하여 見解의 差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歷史的인 現實에 입각하여 兩独 住民의 福祉向上을 목적으로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 간의 協調를 위한 前提条件을 充足시키려는 의도로 다음과 같이 合意한다.”

7·4 南北共同声明

“双方은祖国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問題들에 完全한 見解의 一致를 보았다.

1. 双方은 다음과 같은 祖国統一原則들에 合意를 보았다.

첫째, 統一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主的으로 解決하여야 한다.

둘째, 統一은 서로 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行使에 依拠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實現하여야 한다.

셋째,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우선 하나의 民族으로서 民族的 大團結을 도모하여야 한다.

(中 略)

7. 双方은 以上の 合意事項이 祖国統一을 一日千秋로 渴望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念願에 符合된다고 確信하면서 이 合意事項을 誠實히 履行할 것을 온 民族 앞에 嚴肅히 約束한다.”

< 3 >

国内的으로도 西獨은 平準化 된 中産層 社会와 多元的 民主主義 体制가 완전히 定着되어, 政治·經濟·이데올로기의 모든 面에서 東獨에 대하여 圧倒的인 優位를 保有하고 있다. 그리하여 西獨은 異質的 体制와의 接觸에서 오는 어떠한 衝擊도 능히 消化할 수 있는 体制的 強韌性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安心하고 東獨에 대하여 自由로운 往來와 情報 및 物資의 自由로운 交流를 要求할 수 있는 処地에 있다.

이에 比하여 우리의 實情이 과연 그만큼 自信과 余裕를 誇示할 수 있는 水準에 到達하였는지에 관해 약간의 疑問이 없지 않다. 특히 近来 北傀로 하여금 그들의 소위 “南朝鮮에 있어서의 解放 鬪爭과 革命戰略”을 成功시킬 수 있을 것처럼 誤認케 한 우리 内部의 脆弱性이 아직도 解消되지 않고 있는 時期에 高位 当局者 사이의 政治的 對話부터 開始하였다는 것은 또 하나의 問題点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3. 主 題 發 表

우리가 解決해야 할 統一問題

1. 머릿말
2. 分断国家의 一般理論
3. 分断国家의 統一問題
4. 統一問題의 解決方向
5. 韓國의 進路

I. 머릿말

우리 祖国이 東西世界の 이데올로기의 分極化 過程에서 南과 北으로 分断된 이래 国内外를 莫論하고 各階各層에서, 各種의 會議에서 우리의 分断과 統一의 問題를 놓고 많은 討論이 展開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期間동안에 展開된 統一論議의 大部分은 유감스럽게도 韓民族의 우리 世代가 解決해야 할 統一問題의 性格과 目標을 客觀·妥當하게 究明했다기보다는 一方的으로 統一의 當爲性만을 強調하는 傾向을 보여왔다.

우리는 지난 30年동안 누구도 否認할 수 없는 分断国家의 構成體로서 살아왔고 또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解決해야 할 統一問題는 곧 分断国家의 統一問題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統一에 대한 觀念은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非分断

國家에서 성취된 統一觀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歷史上 成立된 統一은 例外없이 非分斷國家에서 이루어졌다. 서기 676년에 新羅가 成就한 統一은 分斷國家의 統一이 아니었다. 各己 別個로 存在하는 王國들을 軍事的 征服過程을 통해 單一國家秩序속에 廢合시킨 것이 新羅의 統一이었다.

그러나 우리 世代가 解決해야 할 統一問題는 7世紀初의 韓半島를 生存舞台로 삼았던 韓民族의 當時世代가 직면했던 統一問題와는 性格이 같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東西冷戰의 結果로 元來 하나이었고 또 하나이어야 할 國土와 民族이 理念과 體制를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가운데 分斷된 채로 對峙하고 있는 分斷國家를 統一해야 할 立場에 놓여있는 것이다.

萬一 우리가 分斷國家에 살면서도 우리의 分斷國家性을 否認하는 立場에서 統一을 追求한다면 우리의 統一問題는 統一觀念과 統一條件의 乖離때문에 애매모호한 民族至上課業은 될 수 있어도 現實性 있는 實踐課業으로 具體化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韓半島의 統一問題를 우리가 現實性있게 檢討하려면 우선 分斷國家로서의 韓半島의 現實을 究明해야 할 것이다.

II. 分斷國家의 一般理論

우리는 흔히 分斷國家 (divided nation) 와 分裂國家 (partitioned country) 를 混用하는 誤謬를 범한다. 法理論上 前者는

「法的으로 持續되고 있는 하나의 源泉國家를 潛在化시킨 가운데 이 源泉國家의 代表權을 경쟁 하지만 第三國으로부터 源泉國家의 单独代表權을 認定받지 못하는 두個의 部分國家로 分断되어 있는 國家」를 말한다. 이 反面 後者는 「法的으로 持續된 源泉國家의 代表權이 두個의 部分國家에게 각기 相續됨으로 해서 源泉國家의 존재는 消滅하고 두個의 部分國家가 각기 獨立하는 境遇」를 말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獨逸, 越南 등이 分断國家의 範疇에 屬한다면 印度나 파키스탄은 分裂國家로 定義된다. 그러므로 分断國家에는 統一의 問題가 提起되나 分裂國家에서는 統一의 問題가 成立할 餘지가 없다. 政治·社會學的으로는 分断國家는 民族, 言語, 歷史, 文化의 同質性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分裂國家의 경우 同質性보다 異質性이 強하며 過去의 統合은 本質上 強制的 結合이었기 때문에 結合力의 解消와 함께 宿命的으로 分裂되는 것이다.

分断國家의 또다른 特徵은 第二次大戰과 東西冷戰의 結果로 나타났다는 點이다. 과거 역사에는 分裂國家는 不少했으나 分断國家는 없었다. 이 點에서 分断國家는 本質적으로 東西冷戰의 產物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分断國家는 大體로 이같은 特徵을 지니고 있지만 各分断國家의 內的 立場이 表明되는 方式은 一定치 않다. 核心國家論者 (Kern Staatstheorie) 들은 分断의 一方을 源泉國家를 单独으로 代表할 수 있는 母國 即 國家의 核心으로 보는 反面에 他方을 核心에서 分離된 叛亂團體로 규정하고, 母國의 行政力의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權限이 縮少된 것은 아니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縮少國家論者 (Schlumpf Staatstheorie) 들은 領土의 縮少는 곧 權限의 縮少를 의미하기 때문에 分斷된 兩方의 權利와 責任은 同等하다는 立場을 내세운다. 分斷國家 成立의 初期에는 이 두 理論이 격렬한 對立을 보였으나 最近에는 이른바 地分理論 (Dachtheorie) 에 의하여 兩者의 立場을 調和시키는 傾向이 抬頭했다. 地分理論은 「앞으로 顯在化될 源泉國家」의 存在를 前提로 두 部分國家는 源泉國家를 單獨으로 代表할 수 없는 條件下에서 同等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分斷의 一方은 他方을 「事實上的 政府」 (de facto government) 로 보지 않고 하나의 「實在的 政府」 (factual government) 로 본다.

그러나 U.N을 비롯한 第三國의 分斷國家 政策은 分斷當事者들의 立場表明에는 外交上 同調 또는 拒否하는 反應을 보이지만 法適用의 實質에 있어서는 冷酷할만큼 다음과 같은 一般的 準則에 맞도록 展開되고 있다.

(1) 分斷國家의 法律行爲의 主體는 法的으로 持續되고 있는 源泉國家와 二個의 部分國家에 각기 주어져 있다.

(2) 部分國家는 源泉國家를 單獨으로 代表할 수 없는 條件에서 對內外的으로 有效한 法律行爲를 할 수 있다.

仏蘭西와 獨逸의 國際法學界에서 發達되기 시작한 이같은 一般原則은 이제 分斷國家에 대한 法의 一般理論으로 定說化되고 있으며 U.N의 分斷國家 政策에서 實踐化의 段階에 이르렀다. 동시에 分斷國家에서 행해지는 統一에 대한 一聯의 措置도 이 一般理論에 의하여 그 有効성과 適法성이 評價되는 것이다.

東西兩獨의 경우 일찍부터 이같은 法理論을 中心으로 統一努力이 展開되었기 때문에 70年代에 접어들어 브란트 首相의 이른바 獨逸 構成國 獨트린 (Doctrine of Component parts of a Germany) 의 成立을 보게 되었고, 이로써 分斷國家로서의 獨逸問題를 現實的 次元에서 平和적으로 解決할 거스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分斷이래 지금까지 統一에 대한 期待나 意慾은 어느 分斷國家 못지않게 強烈했으나 統一問題를 解決할 客觀的 規範을 分斷國家의 特殊性에 符合하게 展開하는 努力은 不振했다. 우리는 1973年 6月 23日에 發表된 政府의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을 起點으로 分斷國家的 覺醒을 内外에 천명했고, 分斷國家的 現實에서 統一問題를 解決하려는 現實的 立場이 定立되었다.

Ⅲ. 分斷國家의 統一問題

分斷國家는 기본적으로 統一推進의 根拠를 民族的 同質性 회복과 國家的 同一性 회복이라는 두 次元에서 講究한다.

分斷國家는 體制와 理念을 달리하는 두個의 部分國家로 分斷되어 있기 때문에 部分國家内部的 社會化 (Socialization) 過程은 相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部分國家 相互間에 肯定的 相互作用 (positive interaction) 이 없을 경우, 더욱기 統一을 향한 相互間的 態度轉換 (Convergent Reorientation) 이 없을 경우 社會化 方向의 差異때문에 民族的 同質性的 領域은 縮少되고 異質性的 領域은 增大하게 된다. 萬一 두 部分國家間에 同質성이 消滅되고

異質化가 完了되면 統一推進의 원천적 근거가 解消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이 分断國家는 分断國家가 아닌 分裂國家의 길을 걷게 됨으로써 統一을 拋棄당하는 事態에 직면한다. 이것이 分断國家의 本質的 危機이다. 分断國家의 統一問題는 이 危機를 克服할 方案을 찾는 것이 急先務인바 部分國家間에 肯定的 相互作用을 可能케 할 与件의 造成問題라고 할 수 있다.

統一推進의 또다른 根拠는 國家的 同一性 회복의 觀點이다. 法理論上 源泉國家가 없을 때는 새로운 國家形成 (Nation Building)의 課題는 있을 수 있어도 統一推進의 根拠는 있을 수 없다. 獨逸의 경우 포츠담 協定에 의거하여 「하나의 獨逸」 (Germany as a whole)이 法的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源泉國家로서 大韓帝國이 法的 存在로 지속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할 明確한 合意가 없다. 왜냐하면 1910年の 韓日 合併條約에 의하여 大韓帝國이 消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合併條約은 그 成立이 強制이고 또한 이 條約에 대한 抗争이 계속되었다는 事實에 비추어 合併條約의 源泉無効 (null and void)를 주장한다. Verdross는 國際聯盟의 規約과 이를 法現實에 具體化시킨 스티imson·독트린 (Stimson Doctrine) 以前의 合併條約도 源泉無効일 수 있는가에 관해 스티imson·독트린 以前에 成立한 條約도 그것이 強制的 또는 欺瞞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法的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Gugenheim은 「乙巳 保護條約처럼 그 民族의 意思와 관계없이 特定人과 機關이 他國과 체결한 조약은 源泉無効」라는 입장을 취한다.

우리의 境遇 「카이로」 및 「포츠담」에서 이루어진 聯合國의 宣言이 비록 法的 拘束力이 없는 韓國問題에 관한 強大國의 諒解라고는 하더라도 韓日合併의 不當性을 論理的 前提로 成立했다는 點, 어느 國家의 承認도 얻지는 못했으나 臨時政府를 樹立한 條件에서 對日抗爭을 계속했다는 點에 미루어 源泉國家의 法的 持續을 主張할 수 있고 샌프란시스코 講和條約第2條와 韓日基本條約 第2條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憲法 역시 源泉國家의 存続 및 繼承을 宣言했고, 6.25 動亂을 終結시킨 休戰協定 5條 62項도 統一되어야 할 源泉國家의 存在를 默示的으로 前提하고 있다. 따라서 全體로서의 韓半島의 主權回復問題는 새로운 國家形成의 問題가 아닌 統一問題인 것이다. 이점에서 南北韓은 어느 一方도 法理論上으로는 分離獨立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의 統一問題는 現實的 課題로서 國家的 同一性이라는 法理論的 根拠充足에 있는 것이 아니라 民族的 同質性 回復을 目標로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IV. 統一問題의 解決方向

지금까지 學界에서 추진된 分斷 또는 分裂된 11개국을 比較研究한 結果에 의하면 分斷을 克服하고 統一을 成就하는 方法으로 다음 세가지 方法이 각기 추구되었거나 추구되고 있다.

첫째 方法은 一方에 의한 他方의 軍事的 征服 (Military Conquest) 努力이었다. 그러나 第二次 世界大戰 終結 이래 어느

分断国家도 이 方法에 의하여 分断의 問題를 해결한 国家는 없다. 왜냐하면 分断国家는 本質上 冷戰의 産物이기 때문에 分断国家의 어느 一方이 武力으로 現狀打破 또는 變更을 試圖할 경우에는 그것이 分断国内部の 問題로만 定義되지 않고 東西兩大陣營이라고 하는 陣營上の 問題로 波及되어 國際的 關心과 刺戟을 불러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陣營上の 問題가 아니더라도 武力에 의한 現狀打破企圖는 주변 강대국관계의 變動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方法은 統一意慾의 過多로 分断이 不安定한 곳에서 줄곧 追求되기는 하지만 分断国の 屬性이 國際的 関与를 前提한다는 점에서 成功할 可望은 희박하며, 도리어 그것은 分断을 深化시킬 可能性이 크다.

둘째 方法은 分断된 一方의 瓦解에 의한 他方에의 吸收方法이다. 分断된 어느 一方이 政治的·經濟的으로 沒落하여 存立을 유지할 수 없거나 他方이 間接的 攻略에 의하여 相對方을 弱화시켜 瓦解로 引導할 与件이 造成될 경우에 追求가 可能的 것이다. 越南의 경우처럼 安定된 後方을 가질 수 없는 自然地理的 条件下에 있거나 베트남등 反政府勢力이 強力한 곳에서는 이같은 方法이 成立될 우려가 있다. 또 中共과 台灣처럼 力量의 差가 과도히 클 경우에도 이같은 解決方法이 장기적으로 摸索될 수 있다.

그러나 独逸의 경우나 韓國의 경우처럼 平和와 安全의 問題가 國際的 責任下에 놓여 있고 戰略上 安定된 後方이 있으며 内部的으로 安定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 方法의 適用이 힘든 것으로 評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独逸에 비하여 不安定 要素가 없지 않다.

이것은 北韓이 한국통일의 代案을 当初에는 첫째 方法을 추구했고 현재는 둘째 方法으로 成事시키려는 努力을 不斷히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金日成은 체·게바라 (Che Guebara)의 革命投入論에 立脚하여 武装 게릴라를 侵透시키고 胡志明을 본따 地下党 組織을 추구하는가 하면 毛沢東을 模倣하여 对内, 对南, 对外的 多角的 革命力量開發 및 南韓의 強점을 약화시킬 心理戰, 協商戰, 合作戰術 등을 구사하며 南韓内部的 革命的 顛覆을 부단히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30년동안 金日成 企圖의 無謀性을 증명했고 앞으로도 이를 實証할 有利要素를 開發할 수 있다. 게릴라戰이 成立하기 힘든 자연지리적 조건, 地下党的 成長을 源泉封鎖하는 国民들의 共產侵透에 대한 높은 驚覺心, 冷戰論理를 止揚하고 있는 極東地域에서의 데탕트·누드, 國際的 現實認定趨勢, 国内的 安定과 經濟成長 등은 例外없이 金日成의 希望을 虛望化할 要素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国内的으로 團結되고 安定된 成長을 계속 하면서 北韓을 對話에 의하여 開放化로 적극 유도한다면 오히려 우리 主導하에 둘째 方法을 구사할 可能的 域이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方法은 平和的 分断解消의 方法이다. 分断의 兩方이 相互 間에 存在의 現實性을 認定하면서 兩方이 共히 相對方을 직간접 침략에 의하여 전복할 의사를 拋棄하고 이를 制度化 하는 方法이다. 바꾸어 말하면 双方의 어느 側도 自己의 主義·主張을 相對方에 強要하지 않을 것에 合意함으로써 냉전적 대치상태를 克服하

는 것이다. 이 경우 分断된 部分国家간에는 平和共存이 成立한다. 平和共存을 성립시키는 方法으로는 U.N에 同時加入하거나 상호간에 基本關係를 설정하는 協約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方法은 體制와 理念이 다른 두個의 憲法秩序가 一挙에 하나 의 憲法秩序로 統合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前提한다. 동시에 이 方法은 體制와 理念은 달라도 交流와 協力은 可能하다는 立場을 취한다. 分断된 部分国家 相互間에 交流와 協力이라고 하는 肯定的 相互作用이 開始되면 国家의 同一性 회복이라는 統一의 形式的 根拠는 잠정적으로 充足되지 않지만 民族의 同質性 회복이 가능 해지기 때문에 統一의 本質的 근거를 充足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分断의 平和的 해소방법은 形式의 양보에 의하여 實質을 보호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같은 아프로치에서는 一方이 他方을 合併한다는 傳統的 統一概念을 지양하고 體制와 理念이 다른 두個의 憲法秩序가 分断에 基因하는 民族的 苦痛을 輕 減시키면서 民族의 同質性을 회복해가는 統一條件의 改善을 중시한 다. 이때문에 平和的 分断解消論에서는 統一이 平和적으로 成立할 條件이 改善되기 위해서는 部分国家 相互間에 冷戰이 청산되고 平 和가 定着해야 하며, 이 意思를 对内外的으로 制度化시키는 法的 手續으로서 U.N 同時加入을 추구하는 것이다.

U.N 同時加入은 分断固定化를 의미하는 것으로 誤解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U.N 憲章秩序의 오해에 기인한다. U.N에 加入한 国家들이 当事者들의 必要에 의해서 平和的 手段으로 統一 国家를 形成하는 것을 U.N 憲章은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U.N 同時加入은 分断当事者들의 武力的 統合을 抑制할 法的 根拠는 될 수 있어도 平和統一을 妨害할 이른바 分断固定化의 法的 根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獨逸은 이같은 方法을 통하여 分断의 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消시켰으며 兩獨間에 交流와 往來가 빈번해지고 多方面的 協力이 가능해졌으며, 東獨國籍을 가진 사람이라도 外國을 여행할 경우 東獨 大使館이 없고 西獨 大使館이 있을 때 같은 獨逸사람이라는 潛在化된 源泉國家의 同一性의 境지에서 領事的 保護를 提供하기 때문에 獨逸民族의 分断苦痛은 갈수록 輕減되고 있다. 獨逸은 이같은 아프리카에 의하여 政府는 두개가 있으나 民族的 次元에서 分断苦痛이 解消되는 狀態를 統一의 當面目標로 삼고 이같은 成果가 하나씩 생산되는 과정을 통일에 접근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오늘날 兩獨關係는 이같은 方法을 스스로 開發, 創造함으로써 冷戰型의 分断國家의 地位를 脫皮하고 平和的으로 統一을 향하여 前進하는 歷史의 軌道에 進入했다. 傳統的 意味의 統一이 언제 成立될지 아무도 豫測할 수 없다. 그러나 時間的 展望은 不明確하더라도 獨逸民族이 統一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利益이 오늘의 兩獨關係에서 具體的으로 實現되고 있는 것만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一民族 國家內의 두 部分國家(One nation, two states)라는 獨逸的 아프리카는 모든 冷戰型의 分断國家에 많은 敎訓을 提示하고 있다.

V. 韓 國 的 進 路

70年代의 韓半島를 生活터전으로 삼고 있는 韓民族의 우리 世代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分斷과 統一의 問題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해야 할 것인가.

6.25 動亂의 結果로 南과 北은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높은 軍事障壁을 펼친 가운데 지난 4半世紀 동안 아무런 肯定的 相互關係의 설정없이 相互異質化의 歷史를 展開해 왔다. 이제 엘리트층이 主導하는 外交 國防 財政등 上層構造에서는 異質化가 完了되었고, 大衆이 參與하는 教育, 通信, 文化등 下部構造에서도 異質化는 급속히 進行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南과 北이 이같이 斷切된 상태하에서 一方이 他方을 軍事的 征服對象으로 보는 冷戰的 對峙狀態를 지속시킨다면 우리에게서는 統一의 可能性이 源泉적으로 消滅될 것이다.

激動하는 70年代의 情勢속에서 우리는 統一에 대한 希望의 危機를 意識치 않을 수 없는 實情에 놓여있다. 政府는 이같은 狀況 評價에서 70年代에 접어들어 統一을 위한 現實的 措置를 講究하게 되었다. 이 조치는 한마디로 南北間에 冷戰的 對峙狀態를 終結시키고 肯定的 相互作用을 可能케 할 條件을 創造하자는 것이다.

1970年 8月 15日 광복절 경축사에서 朴大統領이 提案한 平和統一構想(8.15宣言), 南北關係를 對決의 構造에서 對話의 構造로 전환시킨 1971年 8月 12日의 赤十字會談 提案, 1972年 7月 4日에 發表된 南北共同聲明, 收復統一憲法構造를 平和統一憲法으로 전환

시킨 1972年 10月 17日의 維新改革, 南北韓의 U.N 同時加入 및 北韓을 傀儡에서 「實際的 政府」(factual government)로 인정하는 1973年 6月 23日의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 그리고 休戰協定의 効力を 維持시키는 가운데 서로 侵略하지 않고 干涉하지 않을 南北關係의 展開에 合意할 것을 要求한 1974年 1月 18日의 南北相互不可侵協定提議는 모두 一貫性있게 南과 北이 冷戰의 굴레를 과감히 벗어나 統一을 平和的으로 성립시킬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萬一 北韓이 政府의 이같은 提議에 同意해 온다면 南北韓은 冷戰의 遺産을 청산하고 상호간에 來往과 交流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南北間에 긍정적 상호작용이 없는 것은 體制와 理念의 差異때문이라기 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存在를 否認하는 冷戰的 對峙狀態때문이다. 南北韓은 統合理論上으로 볼 때, 地理的 인접성(Geographical proximity), 歷史的 統合經驗, 言語, 血緣, 文化의 共同性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 땅에서 冷戰的 對峙狀態가 해소될 수만 있다면 한층더 빠른 속도로 肯定的 統合機能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異質化가 完了된 「위로부터의 統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異質化가 進行중인 「밑으로부터의 統合」은 한층더 용이할 것이다.

이같은 條件의 創造는 南北間의 平和定着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韓半島의 平和는 統一의 원천이 될 民族的 同質性 回復의 필수조건이 아닐 수 없다.

이 땅에 平和가 定着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北韓이 大韓民國을

소위 「解放対象地域」으로 보는 冷戰의 가증스러운 논리를 포기해야 한다. 또한 南北間에 冷戰脱皮를 制度化시키는 節次로서 南北韓 同時 U.N 加入에 동의해야 한다.

北韓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世界的規模로 幕을 내린 「鐵의 帳幕」이 아직도 이 땅에는 내리워져 있고, 이 때문에 우리 民族만이 東西冷戰의 마지막 旗手로 남아있는 것이다.

北韓은 平和定着을 받아들일 수 없는 自體의 弱點과 南韓革命이 가능할 것이라는 誤算때문에 우리 民族의 共同利益 증진에 역행하는 緊張政策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時点에서 統一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北韓의 태도를 平和定着의 方向으로 유도하는 作業일 것이다. 이 작업은 우선 金日成으로 하여금 그들이 30年동안 추구해 온 南韓革命이 不可能하고 또한 직접적 무력침략도 승산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주는 国内的安定을 과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金日成에게 啓蒙된다면 北韓은 平和定着을 받아들일 수 없는 自體의 弱點과 矛盾을 是正하는데 총매진할 것이다. 兵器産業이 消費財 産業으로 전환되고, 外部世界로부터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는데 힘쓰고, 内部體制를 合理化하는데 주력한다면 북한주민의 고통은 경감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金日成은 偶像의 地位에서 人間의 地位로 내려 올 것이다.

우리는 「피뢰와도 대화할 수 없듯이 우상과도 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討 議 内 容

<司 會>

午前에는 두분의 發表가 있었습니다. 慎先生은 問題提起를 통하여 分断國의 雙方의 接觸을 韓國과 獨逸의 경우를 比較하여 銳利하게 分析, 問題를 提起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韓國의 對北韓政策에 대한 反省인 동시에 나아가 새로운 政策樹立에 귀한 示唆를 준 것입니다. 李先生의 理論展開는 새로운 法理論 특히 分断國問題에 關한 國際法理論을 紹介하면서 韓國統一政策의 合理性을 國際法理論에서도 妥當한 것을 主張하였습니다. 새로운 <아프로오치>로서 우리들이 充分히 檢討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參席하신 教授, 言論人 여러분들의 忌彈없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時間關係로 討論參加者 여러분의 發表者에 對한 <코멘트> 또는 質問을 들은 다음에 두분의 答弁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李 宇 榮>

李先生의 發表內容은 매우 有益한 論文이며 專門學者로서도 다루기 힘든 法的側面에서 많은 배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質問을 한다면 統一推進의 根柢를 民族的 同質性 回復과 國家的

同一性 回復이라는 次元에서 講究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여러 차례 民族的 同質性 問題를 言及하였는데, 그럼 果然 同質性에 있어 南北間의 民族的 同質性이란 무엇이며, 또한 民族的인 共通利益分母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統一構想段階(国土統一院 3 段階中을 参照)에서 人道的 接觸, 非政治的 協商交流, 政治協商이라면 바로 政治協商에서 論難이 提起될 南北韓 各個 利益定立에서 論争되는 統一推進의 民族的 同質性이 共通 또는 合致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 南北韓 民族의 同質性은 果然 무엇부터 整理 調整되어야 하느냐 하는 問題입니다. 果然 言語가 같고 生活樣式 習慣이 같다고 해서 南北民族의 同質性으로서 統一論争이 合致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 論議될 問題로서는 그것보다는 먼저 南北韓이 共同으로 合致될 變數의 共通分母를 찾아서 調整되는 것이 民族의 同質性(또는 南北韓의 共同利益)이 아닌가 봅니다. 例로서도 領土保全, 海洋圈保護, 3 者國의 外勢防禦, 農水産開發, 資源의 共同管理 等等 南北韓의 利益에 關한 再定立이 言語, 習慣, 生活面보다 더욱 重要하지 않겠는가 考慮되는 것입니다.

<崔俊成>

韓國統一을 위하여 意慾보다는 智慧있는 政策을 樹立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더욱 力點을 두고 研究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믿어집니다.

1. 韓國의 政治, 經濟에 있어서 對立的 脆弱性的 把握, 分析, 克服問題

2. 北의 金某가 偶像에서 人間의 地位로 還元되어 理性的 對話의 相對가 되도록 하는 方案의 創出問題

3. 事大根性的 除去問題: 冷戰의 當事國들 간에도 和解를 모색하고 있는 現 國際的 狀況下에서 그 희생물이 된 韓國民族 相互間에 아직도 격렬한 憎惡心이 불타고 있다는 것은 뿌리 깊은 事大根性에도 基因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령 지나치게 世界의 流行에 敏感하고, 外國의 것이라면 좋게 여기는 心理現象 등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思想, 宗教, 文化 등 諸 領域에 걸쳐서 그 原產地 보다 더욱 極端의 길을 걷고 있는 現實이다. 그러므로 南뿐 만 아니라 北에 있는 同胞들까지도 그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自己 否定的 國民性을 改造하여 名實相符한 主体性이 강한 精神이 일어 날 수 있는 具體的이고도 緻密한 方策이 研究되어야 할 것입니다.

< 鄭 詰 洙 >

李先生께서는 먼저 法理論的 立場에서 分断国家 (divided nation) 의 一般理論을 展開하고 分断国家的 統一推進의 근거를 民族的 同質性 회복과 国家的 同質性·회복이라는 두 次元에서 求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나아가서 韓國의 特殊性에 비추어 韓國의 統一問題는 現實的 課題로서 国家的 同一性이라는 法理論的 根拠充足에 있는 것이 아니라 民族的 同質性 回復을 目標로 전개돼야 한다는 것을 해박한 資料를 구사해 가면서 論理整然하게 力說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李先生께서는 分断国家 統一問題의 解決方案으로서 첫째, 一方에 의한 他方の 軍事的 征服, 둘째 分断된 一方의 瓦解에 의한 他方에의 吸收方法, 셋째 平和的 分断解消의 方法의 세가지 方法을 論하고 이어서 分断国家로서의 韓國의 進路에 言及하여 韓半島의 平和는 統一의 원천이 될 民族的 同質性 回復이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條件의 創造는 南北간의 平和定着에 의해 可能的 것이며 따라서 이 時点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北韓의 태도를 平和定着의 方向으로 유도하는 作業이라고 結論지었습니다.

李先生的의 以上과 같은 韓國의 統一問題에 관한 論理整然한 理論 展開와 合理的인 現實分析에서 本人은 많은 示唆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共感을 느끼면서 한두가지 未審스러운 點을 말씀드려
보고져 합니다.

첫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李宇榮教授께서도 言及한 바 있
읍니다만은 韓國의 統一과 關聯된 우리 民族의 同質性 問題입니다.
李先生께서는 韓國의 平和的 統一推進의 根拠를 民族的 同質性 回
復에 있다고 強調하였는데 그 點에 있어서는 本人도 同感입니다.
그러나 勿論 韓國民族은 歷史的 統合經驗이라던가 言語, 血緣, 文化
의 共同性を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分斷國家보다도 南
北韓 分斷國家간의 肯定的 相互作用의 可能性面에 있어서 有利한
條件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本人 생각으로는 南北간의
肯定的 相互作用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고도 심각한 問題는 過去의
歷史的 統合經驗이라던가 文化의 共通的 要素등의 條件보다도 現在
南北간의 體制나 이데올로기가 根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發生하는
兩國民의 政治的 社會化(political socialization)의 問題라고
생각됩니다. 즉 北韓은 共產主義的 體制下에 金日成 唯一思想으로
國民들이 洗腦당하고 있는데 대하여 南韓은 自由民主主義的 價值體
系를 國民들에게 注入하고 있어 사실상 南北韓의 國民들은 政治社
會化面에서 相互 接近하기 어려운 平行線上을 걸어가고 있다고 보
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當面한 統一問題와 關聯하여 民族의

同質性を回復하기 위해서는 南北韓 兩者간의 価値体系의 接近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李先生께서 解明해 주기 바라며 또 이 問題解決의 구체적 方法으로서 매스·미디어를 통한 어떤 方法이라도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李先生께서는 分断国家 理論의 뒷받침 하에 韓國統一問題 解決의 試圖로서 南北對話의 當爲性を 強調하였는데 사실상 現時点에서 볼 때 南北對話가 膠着狀態에 빠져 原点으로 되돌아 가다시피 되었는데 이러한 膠着狀態를 打開할 앞으로의 對策에 대하여 政府当局에서는 어떠한 構想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具體的 方案을 政策担当者의 立場에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李 榮 一 >

相互 關聯을 갖는 質問들이었습니다. 먼저 民族의 同質性에 관한 質問에 대해서 強調하고 싶은 것은 異質化된 民族에게는 統一은 必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異質化되기 前에 그 同質性을 찾는 것은 매우 主要한 일입니다.

둘째로, 偶像과의 對話問題인바 이는 먼저 金日成의 哲學이나 그의 誇大妄想症이 포기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前에 自主路線, 主

체思想을 強調하였는 바 지금은 金日成主義를 宣傳하고 있습니다.
現在 世界各國에 金日成主義研究所를 195個所나 設置하고 있으며,
對外宣傳費만 하더라도 韓國에 비해 15倍나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金日成의 狂的 偶像化가 自體的으로 포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째, 南北對話의 打開策인 바 이것은 南北의 <디멘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課業은 北으로 하여금 <디멘
드>가 있도록 誘導하는 것이 急先務입니다.

<朴泰岩>

問題提起를 해 주신 慎博士님의 意見이나 主題發表를 해주신 李
先生의 見解에 대해서 大體로 共感을 가집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가지 點에 關하여 저의 意見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째, 西獨의 경우 完全 民間 베이스에서 접촉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여러가지 立地條件과 西獨의 條件은 너무나 差異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脆弱點을 다
져가면서 獨特한 體制인 北韓과의 對話를 보다 效果的으로 진행시
키기 위해서는 政治的 接觸이 앞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봅니다. 이 點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세미나」에서 指摘된 적도

있읍니다만 우리는 北韓이라는 集團이 가지는 屬性을 正確히 分析
한다면 人道主義的 民間베이스에서만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非政治的인 접촉인 경제교류나 体育人 交流等도 結局은 政治的
베이스에서의 合意없이는 成就될 수 없는 것이기에 비록 多少 性
急한 조치였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7·4 共同聲明」이 가지는
民族的 意義는 절대 과소평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結論的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統一 내지 平和努力은 政治的 베
이스와 民間베이스가 適이 調和를 이루는 가운데 進行되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둘째, 「統一政策의 合理性」이라는 立場에서 본다면 巨視的인 立
場에서 우리는 民族史의 正統性(legitimacy) 繼受姿勢를 取할
必要가 있습니다. 이와 關係해서 비록 작은 것이기는 하나 最近
다시 시작된 상호 誹謗이나 北韓이라는 用語 대신에 “北傀”라는
用語를 使用하는 것을 再考해 볼 必要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勿論 우리 國民全體의 反共意識은 高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正統
性 계수자라는 矜持的 立場과 또 對外的 立場에서 볼 때 저쪽에
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함께 그런 用語를 使用할 必要는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換言하면, 民族的 同質性과 統一意志 합양을 위해. 우리들 國民앞

에 政府는 對北韓政策의 一貫性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國民學校 어린이들이나 感受性이 強한 青年學徒들의 教育的 立場에서도 熟考해 볼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北韓側에서는 UN에 소위 備忘錄까지 만들어 제출, 허위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對備 逆宣傳資料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面에서도 우리는 北韓의 誹謗과 욕설에 대해 맞서지 않고 民族的 矜持로써 寬容的 姿勢를 取함은 좋은 外交資料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째,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에 特히 外交의 強化를 들고 싶습니다. 國際社會의 解氷무드는 솔직히 列強의 實利追求面으로 그 主된 樣相을 보이고 있는 이 때 우리도 어떤 空虛한 名分보다 實利를 바탕으로 하는 積極外交를 展開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勿論 政府當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外交中에서도 恒常 우리 歷史와 밀접한 關係를 맺어 온 隣接國家와의 關係改善에 主眼을 두는 일인데 이를테면 對中共, 對소련 關係의 改善을 통하여 間接적으로 北韓에게 壓力을 주고, 또 直接的으로 對話를 통하여 南北關係를 接近시켜 나가는 것이 效果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東北亞의 平和는 결국 四大強

国の影響과 保障下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점에서 主導權을 장악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6·23 宣言」은 確實히 國際社會에서 主導權을 잡은 效果的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追加하고 싶은 것은 우리 國民에게 反共意識을 고취하는 教育을 實施하는 目的에 政治體制도 그에 맞설 수 있는 「組織化」가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先進國들 처럼 經濟的으로 富하고 社會·文化的으로 安定되면 몰라도 後進性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現實下에서는 政治的 先導性이 큰 役割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背景위에 反共教育도 宗典의 무조건 막연한 批判과 反對方法을 止揚하고 具體的인 北韓 實情을 土台로 行해지는 것이 效果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자면 北韓資料의 供給이 必要하고 이에 대해 政府當局에서는 積極配慮해 주어야 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 金相寬 >

李先生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나 自身 統一問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새삼 痛感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새로 깨달았습니다.

慎道晟박사님의 말씀일으키기(問題提起)부터李先生의 주제 발표, 그리고 討論狀況을 훑어 볼 때, 거기엔 共感이 가는 문제도 많지만 意見의 差異가 엿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慎道晟박사님의 問題提起에 있어 첫째, 우리의 南北對話方式이 順序와 形態에 잘못 이 없지 않았던가? 둘째, 우리는 「統一」에 너무 성급하지 않았던가 셋째, 北傀로 하여금 “南朝鮮 해방투쟁과 革命戰略”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처럼 誤認케 한 우리의 「内部脆弱性」이 지적되었음이다만 우선 이런 問題提起는 統一研究實務를 맡고 계시는 분으로서 核心을 찌른 「말씀일으키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表面에 나타난 事象보다도 背景에 감추어 졌거나 底辺에 침전되어 있는 事象들도 생각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独逸과 韓半島가 「統一」이란 至上課業을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만 內的 狀況은 相異한 점이 많습니다. 一般的으로 列擧되는 民族性的의 強度差異, 周辺關係國의 見解와 利害의 차이, 그리고 東西洋이란 生活, 地理, 思考方式의 차이 등은 물론이고 韓國에선 同族相殘의 무서운 戰爭을 겪었으나 저쪽은 전혀 그런 經驗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對話와 協商의 重要한 바탕이 될 수 있는 生活水準 내지 貧富의 차이가 韓國과 独逸의 경우엔 天壤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보다 戰爭의 經驗과 理

念의 差異, 그리고 歴史的으로 항상 설움을 받아 왔던 韓民族과 그 反對였다고 할 수 있는 獨逸人の 思考方式이 무엇보다 相異한 背景의 重要한 差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獨逸의 그런 상황은 相互接近을 容易하게 하기 마련이며 韓半島쪽은 戰爭을 거쳐 서로 철천의 원수처럼 생각해 왔던 사이이며 또한 歴史的 不信感情이 民族의 뼈속에 아직 깊이 베여 있는 실정으로 비춰봐서 相互接近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當時의 상황으로 봐서 對話의 시작은 兩政權의 實力者에 의한 突破的인 方法밖에 별다른 效果的인 길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獨逸의 경우 民間레벨의 相互作用으로부터 對話와 交渉이 進行되어 政權間의 協商으로 發展되었으나 韓半島의 경우 北엔 事實上 交渉相對가 될 「民間레벨」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北韓의 体制속에 어디 우리쪽 어느 民間레벨과 같은 機關이 있습니까? 이런 모순은 共產(社會)主義 体制의 공통점이기는 합니다만 東獨과 北韓의 경우 相異점이 크기 때문에 東西獨의 民間交流와 南北韓의 民間交流는 그 어휘의 概念이나 定義부터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實力者」의 秘密協商이 오히려 효과적인 對話의 突破方法이 아니었던가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統一”에 너무 성급했다고 하지만 서로 피를 나눈 兄弟姊妹의 血緣關係가 얽혀있는 南北關係이기 때문에, 또 오직 統一만이 南北의 悲劇을 清算할 수 있다고 다들 생각하고 그래서 “統一”이 全民族의 가장 절실한 所望이기 때문에 “統一”에 대한 希望의 語句가 삽입되지 않는 “聲明”은 서로間에 「無意味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만약 7·4聲明에 그런 希望의 句節이 담기지 않았다면 오히려 國民들에 큰 失望을 줬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統一追求의 明文化는 오히려 당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統一에의 「理想」이 곧 現實로 連結돼야 한다는 早急論은 아닙니다.

세째, 우리의 脆弱性은 자랑스런 것이 못되다만 世界의 視角에 비춰본다면 오히려 「自由世界에 있을 수 있는 일」로 觀望者의 눈에 따라 색깔이 달리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李선생님의 所論에 관한 意見입니다만 사실 金日成을 偶像의 地位에서 끌어 내린다는 것은 어려운 作業입니다. 제생각엔 金日成이가 偶像의 座에서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方法은 現實情을 감안하여 金日成 自身이 스스로 偶像의 地位를 포기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側의 어떤 功든 努力도 金日成의 自戕心を 일으키기엔 效果가 없는것 같고 第3國을 통한 「권고·압력」도 效果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金日成은 그만큼 自己의 偶像化에 만족하고 집착하고 또 요지부동의 位置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라」는 것은 그의 思考方式으로선 「죽어라」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李先生은 「傀儡와도 對話할 수 없듯이 偶像과도 對話할 수 없다」고 結論지음으로서 잘못들으면 北韓(金日成)과 對話할 必要가 없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對話」를 斷絶할수야 있겠습니까? 속담에도 「말이 아니면 갈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했습니다만 對話는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金日成을 偶像으로서 對話의 相對로 삼는 것이 아니라 對話의 相對로서 偶像이 아닌 金日成을 相對로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對話에서 당장 얻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對話가 거듭되고 그래서 時間이 쌓이면 金日成은 그 對話의 時間에 正比例하여 「生産의 必要性」에 눈뜰지 모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5천만 민족이 그런 期待를 걸고 있고 世界의 耳目이 쏠리고 있는 만큼 金日成에게도 一沫의 良心이 있다면 언젠가 反省의 反應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期待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對話의 手段을 活用하여 金日成과 北韓同胞를 깨우치는 方向으로 努力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선 南北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統一努力」이 될 수 있으며 그런 方法으로서 民族의 同一性 내지 單一性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고 나아가 同一性을 회복하는데 작으나마 이바지 된다면 우리는 결코 「統一」에 失望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對話를 쌓으므로써 統一의 意志를 굳히고 또 갈고 닦아 우리의 統一像이 内外의 누가 봐도 鮮명한 希望像으로 가꾸어 질 때 民族分斷의 悲劇을 회복할 수 있는 重要契機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文 貞 福 >

1. 問題提起에서 言及된바 처럼 北傀로 하여금 그들의 소위 "南朝鮮에 있어서의 解放鬪争과 革命戰略"을 成功시킬 수 있을 것처럼 誤認케 한 우리内部의 어떤 脆弱性이 과연 상금도 存在한다고 보는가, 만일 存在한다고 하면 그 脆弱性은 具體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그런 脆弱性을 前提로 한 統一方案은 어떤 것인가.

2. 7.4 共同声明은 時宜適切하였고 内容面에서도 妥當하고 不可避한 매우 훌륭한 声明이었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지금 北傀는 이것을 惡利用하여 날로 大韓民國을 헐뜯고 비방하는 口實로 삼고 있는 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이 사실은 北傀에 의한 이러한 惡利用을 豫見치 못한 同声明이 과연 發表者의 주장대로 매우 훌륭한 것이었든가에 대한 疑懼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아닐런지, 그러나 이 문제를 차치하고도 어쨌든 北傀의 惡利用이 現實이라면 이와같은 惡利用에 대처해 나가면서 統一課業을 이룩할 方案은 어떤 것인가.

3. 民族의 同質性은 生活地域의 同一性, 血緣, 同一言語등에 있다고 강조하였는데 이것들도 물론 民族同質性의 구성요소가 되겠지만은 보다 더 重要한 것은 各其의 事物觀이나 生에 대한 見解의 同質性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北傀는 終始一貫 그들의 이른

바 革命路線의 達成을 위한 “武力赤化統一” 등을 계속 획책하고 있는데 이에 맞서고 이를 극복해 나갈 우리의 統一의 原理, 統一의 Vision은 어떤 것인가.

< 權 赫 基 >

韓半島統一의 基本要件을 對內外的 側面에서 考慮할 수 있습니다.

對內的面에서는 南北對話方式은 從來의 對話方式을 止揚하고 為先學者들의 交流 對話가 順序일 것 같습니다. 이는 非政治的인 面에서 純粹한 同一民族의 立場에서 多方面으로 協力과 協助 그리고 相互間의 親睦이 이뤄져야 합니다.

統一을 지나치게 強調하게 되면 北韓側은 이를 誤認할 憂慮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이 恒常 主張한 “赤化統一” 或은 “南朝鮮革命”이라는 強한 意識을 더욱 鞏固히 해주는 結果를 招來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統一이라는 두글자를 神經過敏的으로 表面化할 必要는 없습니다.

그리고 內部的인 脆弱性이 早速히 解消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國民總和의 길이요, 民族의 大同團結을 이룩하는 길이 된다고 봅니다.

對外政策으로서는 大韓民國을 敵對視하는 民族과 國家가 없어야

합니다. UN 同時加入問題도 이를 너무 固守하려는 主張을 말아야
합니다. 國際情勢는 恒常 流動的인 것이기 때문에 中立 弱少國家
들의 同情과 支持가 必要하며 強大國들의 一致된 意見이 있지 않
고서는 不可能합니다. 지나친 意慾은 오히려 損害를 가져오기 마
련입니다.

< 李 榮 一 >

統一像에 對한 얘기가 나왔읍니다만 매우 어려운 質問입니다.
率直히 말해서 「모델」은 없읍니다. 傳統的인 統一概念으로 理解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脆弱性에 關한 指摘도 여러 가지 側面에서 考慮될 수 있
읍니다. 특히 民主友邦國과의 關係, 北韓과의 關係, 나아가 北韓의
心理戰의 側面에서 많은 問題등이 있으나 段階的으로 考慮할 때
그것은 解決될줄 믿읍니다.

脆弱性의 問題는 單一觀点에서 論議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 아니
라 이것은 언제나 二重點 觀点에서 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現實과 先進諸國과를 대비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脆弱性和 北傀와
의 대비에서 본 우리의 脆弱性, 이렇게 區別해야 할 것입니다.

先進國家와 대비해서 우리에게 만일 脆弱性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 분발해서 이의 解消에 노력할 따름이나, 그러나 北傀와 대비하여 볼 때 우리에게 別 커다란 脆弱性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혹 社会不条理나 貧富의 隔差나 云謂하는데 과연 日刊紙나 週刊紙등에 보도되는 것 같은 사실, 즉 牛乳로 목욕하는 有閑마담이 한편으로 보도되는가 하면 生活苦로 인한 一家集團自殺이 또 다른 편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나 牛乳로 목욕을 하는 有閑마담이 우리國民의 몇%이겠으며 生活苦로 集團自殺을 해야 할 國民이 과연 몇%이겠는가. 극소수일 것이며 全體的인 生活水準이나 國民大多數의 生活相은 北傀를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7.4 共同聲明이 北傀에 의해 惡利用되고 있으니 그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一方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北傀의 실정을 보면 그쪽에서도 특히 그쪽 軍部측에서 오히려 7.4 共同聲明은 南朝鮮에만 有利한 立場을 허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不平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떤 突破口를 뚫기 위한 措施는 언제나 어느정도의 日可日否가 따를 것이나 이런 日可日否때문에 極限的 對立을 지속해 온 南北間의 장벽에 突破口를 뚫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훌륭한 일이 못되며 따라서 이런 突破口를 그것도 우리의 initiative로 마련할 수 있었던 7.4 共同聲明은 역시 매우 획기

적이고 훌륭한 것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統一의 原理 또는 Vision에 관해서는 앞에 있었던 李宇榮先生의 質疑에 대한 答弁에서 言及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答弁으로 代하고자 합니다.

< 李鍾明 >

처음엔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았는데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이 계신 뒤라 드릴 말씀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체로 金日成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스게 같지만 金日成을 여기 불러다 앉혀놓고 「統一이 안되는 것, 그건 바로 너 때문」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되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러나 金日成의 存在에 대해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諸般優勢性이 金日成을 꺾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金日成 때문에 統一이 안된다는 理論만을 展開한다면 金日成이가 죽거나 去勢될 때까지 統一問題를 保留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金日成이가 去勢했다 하

드라도 第2의 金日成이나 그 體制가 안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 우리는 北韓에 비해 우리의 취약점이 무엇이며 강한 점이 무엇인가를 冷情하게 검토해서 취약점을 最少限으로 줄여가며 강한 점은 더욱 伸張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강한 점은 精神的인 것, 物質的인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중에서 는 精神的인 面의 強점이 重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北韓에 自由가 없는 反面 우리에게 自由가 있다는 그런 強점을 伸張해 나가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여유있는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고 歷史的인 正統性을 主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金日成이와의 對話가 곤란하니 北京이나 모스크바와의 對話를 통해 統一의 길로 接近한다고들 하지만 여기에는 無限의 期待가 있을 수 없고 상당한 限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오로기」의 對決에서 궁극적인 利害關係에 부딪칠 때 共產主義가 同一 理念上的 集團이나 國家를 支援한다는 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보다 더 分명한 論理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間接對

話의 길은 결국 原点으로 돌아가는 惡循環에 不過합니다. 이 때
문에 外勢로부터의 協助는 外勢를 納得 乃至 양해시키는 우리측의
確固한 能動的 方案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는 安易한
外勢依存이라는 인상을 못면하게 됩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
만 外勢依存은 新羅가 唐나라의 힘을 빌려 韓半島를 統一한 以來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民族의 고질이 돼 있습니다. 美國이 南
北戰爭을 할 때 弱勢에 몰렸던 南部가 英國이나 프랑스 함대의
軍隊上陸支援을 끝내 拒否한 것처럼 우리도 南·北韓이 自主적인
바탕위에 交流 내지 統一이 成就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
는 것이 重要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既存「이 데오로기」의 對峙狀態를 止揚할 수 있는 強力하고 完
璧에 가까운 理念을 새로운 次元에서 統一問題를 다루는 노력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講究해 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主題發表中
「統一을 向한 相互間의 態度轉換이 없을 경우 社會化方向의 差異 때
문에 民族的 同質性의 領域은 縮少되고 異質적인 領域은 增大된
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同感입니다. 事實 統一問題가 계속 時期

를 늦춰 双方의 異質化가 완료된다면 統一을 拋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先史時代 原始人 祖上들이 韓半島에 정착한 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 지내온 共同性을 民族的인 次元에서 우리 現實에 適合한 理念으로 昇華시킬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共同의 歷史와 言語, 文化를 지니고 또 地政學的인 측면에서 본 하나의 國土에서 生活土臺를 形成한 同質性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既存 「이데오로기」를 초월할 수 있는 充分한 要素로 擴大시켜 나갈 수 있는 貴重한 特殊性이라고 생각합니다.

以上 세가지 저의 意見을 말씀드리고 저의 순서를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崔 在 元 >

오늘의 統一問題 심포지움에 있어서 「問題提起」를 해주신 慎道晟 博士와 「主題」를 發表해 주신 李先生의 말씀을 듣고보니

첫째 ; 慎道晟 博士는 南北對話에 있어서 對話의 順序와 形態에 있어 잘못되지 않았나? 即 너무 性急하게 서둘게 되어 飛躍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國民의 一部와 學生들 中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줄 압니다. 그것은 政府의

統一에의 3段階接近方法으로서 第1段階로 人道的接觸, 第2段階로 非人道的接觸, 第3段階로 政治的接觸을 提示했었는데 第1段階인 人道的次元에서의 南北赤十字會談은 現在에 이르기까지 議題마저 合意를 보지 못할 程度로 아무런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데 第2段階로서의 經濟·文化·藝術·스포츠等의 交流를 뛰어넘어 第3段階로서의 政治的接觸을 했는데 여기서

(1) 人道的·非政治的接觸을 마무리 짓지 않고 政治的接觸으로 飛躍했어야 할 理由가 있을줄 아는데 그러한 事由는 무엇이며?

(2) 現時점에서 統一의 3段階接近法은 修正되었는지? 或은 아예 拋棄하였는지?

(3) 이렇게 된데는 非但 南北對話問題 뿐만이 아닌 每事에 諸般狀況을 分析·檢討함이 없이 早急히, 性急하게 서두는 우리의 民族性的 問題는 或은 없는지? 說明해 주시고,

둘째; 李先生은 우리의 統一政策의 合理性을 檢討함에 있어 法理論 特히 國際法理論을 援用해서 좋은 論文을 發表해 주어 크게 參考가 되었는데 한마디로 要約하면 統一의 前提는 먼저 北韓의 態度를 平和定着의 方向으로 誘導하는 作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國民의 一部에 있어서는 北韓을 平和定着의 方向으로 誘導하는 것과 內務部, 文公部等을 中心으로 한 反共政策, 文敎部를

中心한 反共教育과의 相關性에 對해 疑問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前까지도 國民에게 北傀를 誹謗도, 批判도 하지 못하게 했다가 다시 反共으로 原狀復歸하는 듯한 感을 줌으로서 國民의 一部가 갈피를 못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北傀는 統一戰線戰術에 있어서 많은 虛構性을 띄고 있으면서도 例를 들면 「平和統一」戰略에서 보는 것과 같이 戰術의 一貫性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統一政策에 있어서는 一貫性이 欠如되지 않았는지?

셋째 ; 慎博士와 李先生 두분이 統一作業의 前提로서 強靱性を 지닌 體制 即 自信과 餘裕를 誇示할 수 있는 體制의 整備를 強調했는데 여기서 國民의 一部, 特히 大學生들 가운데는 共產主義와 對決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自由民主主義體制를 보다 더 強化하는 길 以外에는 다른 길 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即 多元的 民主主義體制가 定着되어 多數의 相異한 意見가운데서 共同의 善, 共同의 意志를 찾는 데에서만 體制的 強靱性이 있다고 보는 大學生들의 意見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民主主義理念으로서의 自由·平等·博愛를 빨리 土着化시키는 方案은 무엇인지?

아울러 우리 内部의 脆弱性이 아직도 解消되지 않고 있다 했는데

여기서 우리内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脆弱性으로 도사리고 있으며 또 그의 解消策은 무엇이겠는지?

우리内部의 脆弱性도 있지만은 우리는 自由라고 하는 人權의 尊重이라고 하는 貴重한 資産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自信과 餘裕를 갖고 北傀에 처할 수 있다고 確信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即 自信과 餘裕를 가진 위에, 우리 國民의 보다 더한 團合과 自信, 餘裕를 爲해 우리内部의 脆弱性을 發見하고 이를 治療하면 되지 않는지?

以上 몇가지의 質問에 對해 具體적으로 說明해 주시면 이곳 심포지움에 參席한 教授, 學生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앞으로 學生을 指導하는데 있어서 크게 參考가 되겠습니다.

< 李 榮 一 >

北韓의 權力體制의 變化와 金日成主義의 展望에 關해서는 獨逸의 경우 「울브리히트」의 死亡 以後 兩獨間의 基本條約이 正式으로 調印되었다는 事實을 우리는 記憶합니다.

三段階統一方案에 關해서는 基本的으로는 修正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反共政策은 多元的 性格을 띠우고 있음이 事實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重要한 것은 自由民主主義와 關聯지워 생각

할 때 否定的인 것보다 오히려 肯定的인 姿勢가 必要합니다. 그
理由로 美国式 民主主義를 따르고 있는 國家가 겨우 17 個國家가
되고 있으나 美国式의 自由民主主義를 그대로 施行되는 國家는 없
습니다.

< 司 會 >

오랜 時間 여러 討論參加者들의 眞摯한 發言이 있었읍니다. 여
러 先生들의 發言內容이 비록 重複되는 것이 있기는 하나 오늘의
統一政策에 關한 매우 重要한 發言이었읍니다. 그것은 統一政策의
合理性을 檢討하는데 또한 重要한 問題點이었고 李先生의 答弁도
우리에게 甚 滿足스러운 것이었읍니다. 고맙습니다.

休 息

<司 会>

지금부터는 주로 이곳에 参加한 市内 6個大学 学生代表를 中心하여 討論을 始作하겠습니다. 統一問題에 關하여 專門教授·政府側人士와 함께 이렇게 眞摯하게 討議를 가지는 機會는 그렇게 많지 않았읍니다. 西獨의 東方政策에 보여 준 大學生들의 叡智와 努力이 오늘의 여러 學生들에게도 꼭 같이 있으리라 믿읍니다. 平素에 느끼고 있던 統一政策에 關한 疑問이나 見解를 率直하게 提起, 皮력하는 이 時間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의 會議에서 發言하신 教授나 政府人士에 대하여 質問이 있으면 指名하여 質疑해도 좋읍니다.

<權 相 錫> (嶺南大)

몇가지 質問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韓國의 對中·소政策은 어떤가. 政治的인 「아프로오치」가 아닌 經濟的·文化的 「아프로오치」를 이들 國家에 積極的으로 展開하여 實利를 거둘 생각은 없는가. 그리고 美·日·中·소에

대한 우리의 外交靑写真을 밝혀 주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北韓의 對南解放戰略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바 最近의 北韓의 갖가지 挑戔에 관하여 國民들은 靑기大會만 하고 있는바 이 挑戰에 관한 相應하는 對應策은 없는가.

< 송희원 > (韓社大)

오랫만의 對話이다. Yes Man이 아닌 No Man으로서 몇가지를 提起하고 싶다. 統一政策이 單純한 政治的 目的으로 利用되지는 않았던가. 西獨의 Kbln 大學院生에서 東方政策의 「아이 디아」를 얻었다면, 우리 젊은이에게 參與意識을 더욱 助長하고 北韓學을 科目으로 하고 우리의 欸약성을 我田引水格으로 몰아치우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 李榮一 >

中·소에 대한 우리의 政策은 研究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中·소 兩國關係도 充分히 考慮되어야 할 問題이다.

北韓의 挑戔에 대한 應징은, 最後手段으로 戰爭으로 생각되나 그 戰爭은 4半世紀間에 걸쳐 建設된 南北韓의 諸般實情을 考慮할 때

避해야 할 問題이다.

< 김 공 식 > (慶北大)

두가지를 集約 質問하겠는데

첫째는 中·소關係와 南北對話의 推進과는 如何한 關係가 있는가.

둘째는 우리의 反共의 具體的 行動은 무엇인가.

< 노 병 연 > (慶北大)

平和統一憲法은 緊張과 統制가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體制를 轉換시키는 것이 아닌가.

民族의 同質性과 反共教育의 強化와는 어떤 關聯이 있는가.

< 최 대 영 > (慶北大)

獨逸의 경우 西獨이 壓倒的으로 優位를 지니고 있는바 韓國의 경우는 어떤가.

< 채 회 중 > (嶺南大)

「유엔」에 加入하는 것 보다 統一에 置重하는 政策을 써야 할 것이 아닌가.

統一의 時期는 어떻게 보며, 南北韓의 諸般 比較는 어떤가.

< 李 榮 一 >

여러분들의 統一政策에 関한 至大한 関心을 감사합니다. 質疑하신 問題들은 이미 教授님들과의 討論에서 充分히 開陳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建設的인 여러가지 提議는 最大限으로 反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統一政策에 関한 諸般資料 특히 北韓學에 関한 資料등도 銳意 檢討해서 上部에 積極 反映시키겠습니다.

< 司 會 >

이미 豫定時間보다 거의 한시간이 훨씬 넘도록 討論을 하였습니다. 더욱기 大學生들과 함께 公開的으로 統一政策에 関한 自由롭고 眞摯한 討論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꽤 有益한 일이였으며 앞으로 계속 奨勵될 일이라 믿습니다.

慎博士의 問題提起나 李先生의 重要하고도 有益한 論文發表에 이어
행해진 活潑한 討論은 우리의 統一政策의 合理性을 檢討하는데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理解하고 또 具體化시키는데 커다란 도
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參加者였으나 그 發言內容이
偶然히도 一致된 것이었으며 비록 表現은 다르다 하더라도 意味하
는 것은 同一하다는 것을 指摘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政府는 이
같은 知性的의 소리를 參酌하여 統一政策의 보다 效率的인 運營이
있기를 바라는 동시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參加者 여러분께 한
번 다시 감사드리면서 이 會議을 全部 마칠 것입니다.

5. 結論斗建議案

住民 사이에는 "이데올로기"와 政治體制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같은 民族으로서의 相互理解와 民族的 共感이 끊이지 않고 維持되어 왔다. 그리고 双方이 다 内部體制의 整備에 힘쓴 結果 충분한 安定性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들을 둘러싼 國際環境 또한 東西 兩陣營간에 勢力均衡이 確立되어, 점차 對決보다는 和解와 共存을 摸索하는 段階로 접어들었다. 이리하여 西獨政府는 모든 与件과 時機가 成熟된 것을 看取하고 우선 東歐 共產圈의 總帥인 소聯에 대하여 積極적인 緊張緩和外交를 展開하였다. 그리하여 1970年 8月 마침내, 二次世界大戰의 敵國이요 그後에도 줄곧 極甚한 敵對關係에 있던 소聯과의 사이에 相互不可侵條約을 締結하기에 이르렀다. 西獨은 이 餘勢를 몰아서 "포오랜드"를 비롯한 그밖의 東歐 共產主義 諸國과 하나하나 關係를 正常化하는데 成功하였으며, 이와같은 広範한 東方政策(Ostpolitik)의 基礎 위에 비로소 東獨과의 사이에 政府레벨의 交渉·折衝이 可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國土가 兩斷된 以來 南北간에 거의 類例를 볼 수 없는 徹底한 斷切과 極限적인 對決狀態가 持續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双方 高位 當局者들이 極秘裡에 서울과 平壤을 往來하면서 秘密協商을 벌인 결과 1972年 7月 4日 갑자기 저 劃期的인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었는데, 그 內容의 急進성과 이에 따

른 南北關係의 豫想外의 變貌는, 우리 國民은 물론이요 全世界를 驚倒시키고 남음이 있었다.

물론 우리는 韓國의 統一問題가 獨逸問題와 똑같은 方式과 順序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主張하는 것은 아니다. 韓國과 獨逸 사이에는 分斷의 由來에서부터 큰 差異가 있을뿐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獨逸에서 겪지 않은 同族相殘의 淒絶한 戰爭이 있었다. 이 戰爭으로 말미암아 南北韓 사이에는 씻을 수 없는 敵愾心과 憎惡感이 깊이 뿌리박게 되었으니, 이와같은 狀況 속에서는 南北간의 接觸과 對話의 길을 摸索함에 있어서 우선 政府레벨의 "이니시아티브"가 不可欠함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7·4 南北共同聲明이 責任있는 當局者 사이의 秘密協商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自體는 極히 自然스러운 일이며, 여기에 아무런 異論이 있을 수 없다. 다만 問題는 그 共同聲明의 內容에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韓半島의 情勢는 南北간에 四分世紀에 걸친 絶對的 斷切과 極限的 對決狀態가 持續되어 왔을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國際環境 또한 美·소·日·中共 등 四強 사이의 勢力角逐이 繼續中에 있어 아직도 充分히 安定된 것이 아니며, 매우 流動的인 狀態에 있다. 이러한 條件下에서는 分斷現狀의 變更을 의미하는 우리의 統一接近은 극히 조심스럽고 慎重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오랜 期間의 對決 끝에 到達한 南北간의 最初의 合意는, 窮極的인 統一方案보다는 우선 두 體制의 平和的인 "共存"에 主眼을 두어야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7·4 共同聲明은 지나치게 "統一"을 強調한 듯한 感이 없지 않다. 특히 그것이 "祖國統一을 一日千秋로 渴望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念願……云云"하는 等屬의 感傷的인 語句를 驅使해 가면서, 우리 國民으로 하여금 금방이라도 統一이 實現될듯 한 허황된 期待를 품게 한 것은 크나큰 失策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後 南北調節委員會의 進展過程을 보면, 이 共同聲明에서 "完全한 見解의 一致를 보았다"고 노래한 "祖國統一原則"이라는 것은 其實 완전한 "見解의 不一致"였음이 立證되었고, 도리어 그것은 北韓 共產主義集團에 의한 外軍撤収 要求, "유엔" 同時加入 反對 등의 口實로 利用되며, 저들의 소위 "南朝鮮革命"을 통한 赤化統一戰略의 最大武器가 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누구를 問責하려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7·4 共同聲明은 그후 一年이 지난 昨年 6月 23日에 公表된 平和統一外交政策에 관한 大統領特別聲明에 의해 補完·修正되었다. 다만 이 6·23 宣言은 우리側의 一方的 宣言인데다가 時期的으로 너무 늦었기 때문에 北傀측의 拒否한 바 되었

고, 아무런 實效를 거두지 못한채 있다. 그러나 어쨌던 6·23 宣言에 明示된 路線이야 말로 現時점에 있어 가장 合理的인 南北關係의 調整方式임에는 틀림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 政策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수 밖에 없다.

이리하여 우리는 当面目標로서 南北韓의 共存體制 確立을 위해 努力하는 한편 또한 우리 國家와 國民이 指向할 바 長期的인 統一目標를 設定할 必要性이 切實하다. 이는 過去에 있어 우리 國民 全体가 總意로서 參與하며 追求해야 할 遠大한 統一의 "비전"을 갖지 못하고, 그때 그때의 臨機應變的인 政策變化에 따라 右往左往해 온 經驗에 비추어 더욱 時急한 課題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長期的인 統一"비전"을 確立하기 위해서는 全國民의 總智를 모을 수 있는 하나의 尙大한 研究機構가 必要하다. 이에 우리는 國土統一院 傘下의 獨立機關으로서 假稱 "平和統一研究所"를 新設하여, 國內의 모든 優秀한 頭腦를 集結하며, 널리 海外의 專門學者들과도 連結할 수 있도록 충분한 財政的·行政的 뒷받침을 할 것을 建議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번 "심포지움"에는 大邱市内 所在 6개 大學의 學生 幹部 約 50 名을 參加시켜, 自由로운 討論과 意見交換을 하도록 하였다. 그 結果 이들 젊은 世代 사이에는 現事態에 대한 失望과

아울러, 그럼에도不拘하고 統一問題에 대한 날카로운 關心이 식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이들 戰後世代에게는 旧態依然한 "反共"이 별 實効를 거둘 수 없으며, 感情的인 反共意識의 鼓吹보다는 理知的인 論理에 立脚한 새로운 形態의 反共思想의 啓發이 必要함을 切感하였다. 이에 本研究所에서는 來学期初에 反共問題를 中心으로 하는 또하나의 "심포지움"을 開催할 豫定이니, 国土統一院의 이에 대한 支援을 要請하는 바이다.

<끝>